

연예종합



2PM이 최근 소녀시대와 함께 찍은 테마파크 캐리비안 베이 CF. 이제는 2PM이 등장하는 CF만 모아도 하루 일과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캐리비안 베이

CF 10개 ‘2PM의 하루’

화장품·리조트 등...아파트·금융만 남아
“6개월 몸값 5억 훌쩍” 광고계 인기 독주

허민영 기자 justin@donga.com

이제 아파트와 금융만 남았다. 인기 아이돌 그룹 2PM이 활동 재개와 함께 광고시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4개의 CF를 새로 추가하며 광고계의 확실한 블루칩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리조트 브랜드인 캐리비안 베이를 비롯해 화장품 잇츠 스킨(It's skin), 캄빈클라인 진, 음료 브랜드인 DK(다이나믹 킨)이 새로 계약을 맺은 제품들. 2PM이 모델로 출연 중인 CF는 이로써 10여개가 됐다. 특히 휴대전화, 화장품을 비롯해 주류 및 음료, 과자, 리조트까지 출연하는 제품만으로 '2P

M의 하루'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망위적이다.

2PM은 가요계 정상에 올라선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휴대전화인 애니콜 코비, 카스 맥주, 코카콜라, 스포츠 의류인 스포리스, 마켓 오, 파리 바게뜨까지 모두 6개의 제품 CF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고계가 추산하는 2PM의 몸값은 6개월 단발 기준으로 5~6억 원 선. 6개월 단발에서 1년 전속까지 다양한 계약 범위를 고려했을 때, 2PM은 2009년 한 해 동안 CF 개런티만으로 70~80억원 을 거둬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2PM의 뛰어난 상품성은 최근 마케팅 여론 조사 회사들의 분석에서도 입증됐다. 리스피아르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PM은 걸 그룹 소녀시대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가수로 선정됐다고 알려졌다. 2PM은 4월 19일 세 번째 싱글 앨범인 '돈트 스톱 캔트 스톱'(Don't Stop, Can't Stop)을 발표했다.

허민영 기자 justin@donga.com

명품 조연들, CF도 명품이네

‘신이라...’조진웅, 안드로이드폰 능력연기
‘공신’ 이병준·임지은, 서울우유 닭살 커플

“CF는 톱스타들만 하나? 우리도 한다.” 영화와 드라마 속 명품 조연들이 CF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톱스타들의 전유물로 알려진 제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요즘 영화 ‘베스트셀러’와 MBC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친숙한 조진웅은 SK텔레콤 안드로이드폰 ‘OVJBT’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조진웅은 광고에서 드라마에서 보여준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자연스러운 애드리브로 일반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서비스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여러 작품에서 돋보이는 연기로 대중성을 얻은 조진웅을 모델로 기용해 제품 사용법에 대한 이해력과 제품의 친근함을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명품 조연 조진웅이 출연하는 SK텔레콤 안드로이드폰 CF의 한 장면. 사진제공 | SK텔레콤

23개월 만에 출연 중이다. 특히 한정수는 드라마 속 중후한 목소리와 반듯한 이미지로 연기자의 신뢰감을 최우선으로 꼽는 금융권 광고 모델로 발탁돼 여느 톱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 광고 관계자는 “톱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면 제품이 톱스타의 이미지에 가려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하지만 김민경, 조진웅 같이 연기력이 뒷받침 되는 이른바 명품 조연들은 CF 연기까지 가능해 톱스타들과 다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최근 광고주들의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서우 ‘밤샘 촬영’...바쁘다 바빠

14일 칸 출국 맞춰 ‘신데렐라’ 강행군
‘하녀’ 대박 땀 안방·스크린 동시 흥행

서우(사진)가 칸 영화제 레드카펫의 입성을 위해 요즘 밤샘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서우는 영화 ‘하녀’를 통해 12일부터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63회 칸국제영화제에 참가한다. ‘하녀’가 경쟁 부문에 진출함에 따라 서우는 칸에서 공식 상영과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녀는 ‘하녀’의 현지 공식 시사회 14일에 맞춰 프랑스로 출국할 계획이다. 이후 ‘하녀’에 함께 출연한 전도연 이정재 등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3~4일 동안 칸에 머문다. 올해는 ‘하녀’를 비롯해 윤정희 주연의 ‘시’,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 등이 칸 영화제에 진출해 한국 배우 여러 명이 영화제를 찾는다. 그 가운데 서우가 가장 어린 후배이다. 하지만 연기 데뷔 3년 만에 칸 레드카펫을 밟는 행운을 맞은 그녀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현재 출연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촬영과 영화제 일정이 맞물린 탓이다. 서우의 선택은 ‘밤샘 촬영’. ‘신데렐라 언니’는 서우와 문근영, 천정명까지 주인공 3명의 출연 비중이 매우 높아 특별한 대안 없이 영화제 참석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촬영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칸으로 떠나기 전 일주일 분량의 촬영을 미리 마치는 게 목표”라며 “제작진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연분을 미리 찍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5월은 그녀에게 ‘기회의 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데렐라 언니’는 지상파 3사 수목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2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녀’까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다면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동시에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A양 잦은 소속사 바꾸기 “난 의리 몰라!”

오프더레코드

연예인과 소속사는 상업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쌓아가는 인간적인 의리라는 것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은 소속사와 10년이 넘게 계약을 이어가는 스타들의 이야기는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또 소속사 식구의 일이라면 마치 형제나 친구의 일처럼 달려가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 또 가끔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할 때 그저 ‘한 식구’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려온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덕목이 계약 조건 못지않게 중시되는 연예계에서 최근 한 신인급 여배우의 잦은 소속사 바꾸기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데뷔 3년차인 A양은 지금까지 몸을 담았던 연예기획사만 세 군데. 햇수로 따지면 1년에 한번 꼴로 옮긴 셈이다. 그녀의 첫 소속사는 신인인 A양을 좋은 작품에 캐스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노력 결과 당시 연기력이 검증되지 않은 A양이 비중 있는 조연을

맡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역 덕분에 가능성 있는 신인 연기자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이후 “회사가 나의 연기 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사와 이별한 후 새 기획사로 옮겼다. 이후 그녀는 두 번째 소속사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고 주조연급으로 캐스팅 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인기가 오르자 새 드라마와 영화 캐스팅 제의와 광고 섭외가 잇따랐다. 소속사가 “이제 신인 꼬리표를 떼고 회사의 간판 스타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쉴 때, 그녀는 또 한번 소속사에 이별 통보를 했다. 좀 더 큰 물(?)에서 연기를 배우고 싶다는 말과 함께. 결국 A는 자신의 일을 담당하던 매니저와 함께 세 번째 소속사에 스타급 대우를 받으며 입성했다. 이후 그녀의 안하무인격의 콧대 높은 처신은 여러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아무리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인데 언제 또 세 번째 소속사에서 나올지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다.

거북이는 가도 우정은 영원해

지이, 금비 솔로 데뷔곡 랩 불러줘

거북이는 해체됐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한 듯 하다. 혼성 트리오 거북이의 전 멤버 지이가 최근 솔로로 데뷔한 동료 금비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금비의 데뷔곡 ‘콩닥콩닥’의 스페셜 버전에 객원 가수로 참여한 것. 지이가 새롭게 편곡된 이 노래에서



팀이 해체됐어도 여전히 우정을 보여주는 트리오 거북이.

말은 부른 랩. 일본에서 유학 중인 지이는 4월 초 잠시 귀국해 녹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2일 “지이가 노래의 피처링 외에 금비와 함께 무대에도 설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4월 천안함 사고의 여파로 동반 출연이 예정된 방송 프로그램 상당수가 결방이 되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밝혔다. 4월 초 지이가 귀국한 것은 거북이의 리더 티플맨(본명 임성훈)의 2주기 때문. 지이는 금비와 함께 티플맨이 영면해 있는 추모관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지이가 객원 랩 가수로 나선 금비의 ‘콩닥콩닥’은 이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거북이의 향수를 느끼는 팬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민영 기자 justin@donga.com